

경제 동향

■ 요약

■ 경기 생산/출하·재고 순환/소비/물가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유지(12월: -15.6% → 1월: -11.8) - 1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107.3(2005=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1.8% 감소해 지난 달의 감소세가 완화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폭 확대(12월: 3.5 → 1월: 21.7%) - 1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부문이 10.8% 증가하고 대형마트 부문이 36.7%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21.7% 증가함 ○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상승 - 2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함 - 상품부문, 서비스부문 모두 전월대비 상승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비 소폭하락 - 2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한 61.8%로 남자는 73.2%, 여자는 50.9%임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소폭 상승 - 2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만5천명(0.3%) 증가한 486만명이며, 전월대비로는 4만9천명(-1.0%) 감소함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2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4.5%로, 전국과의 실업률 격차는 1.0%p로 지난달보다 소폭 감소함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2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78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2% 증가함 - 민간부문은 사옥 신증축 등 사무실 부문의 발주가 증가하고 있고, 공공부문은 신규 주택 및 관공서 공사부문의 감소로 건설수주액이 감소하고 있음 ○ 3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세는 지속 - 3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1.4% 상승하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3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9%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음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소폭 증가 - 2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32.9조원으로, 전월대비 1조 908억원 증가하여 소폭 상승되었음 ○ 2월 기준 전월대비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6개 증가하고, 어음부도율도 증가함 ○ 서울시 신용보증 건수 및 금액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3월중 1,319건, 52,566백만 원을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는 34.2%, 금액은 63.2% 증가함 ○ 서울시 수입 높은 증가세 - 서울의 수출은 컴퓨터와 같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기계류 정밀기기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18.0%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서울은 반도체와 철강재 등의 수입 증가로 인해 증가율이 35.9%로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생 · 산 |

2008년 2월 중 제조업부문 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반적으로 수출 호조, 소비 증가 등으로 상승 기조를 계속 이어나감
 - 2월 중 생산은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의 설날효과 등에 따른 상대적 감소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
 - 광공업생산은 지난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출하가 둔화됨에 따라 재고는 증가율이 확대됨
 - 광공업 생산은 영상음향통신 등이 호조를 보였으나, 식료품, 자동차 등의 내수 부진으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전년동월대비로는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통신 등의 호조로 10.1% 증가하여 두자릿수 증가세가 지속됨
 -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하여 지난달에 비해 0.9% 감소함
 - 전년동월대비로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 등의 호조로 5.9% 증가함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08년 2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95.0(NSA, 2005=100)으로 전년동월대비 7.0% 감소함
 - 업종별로 보면 의복 및 모피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금속가공 등에서 감소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부문은 대폭 감소, 경공업부문 소폭 증가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8.0% 감소하여 지난 달 보다 감소세가 완화되었으며 경공업부문은 소폭 증가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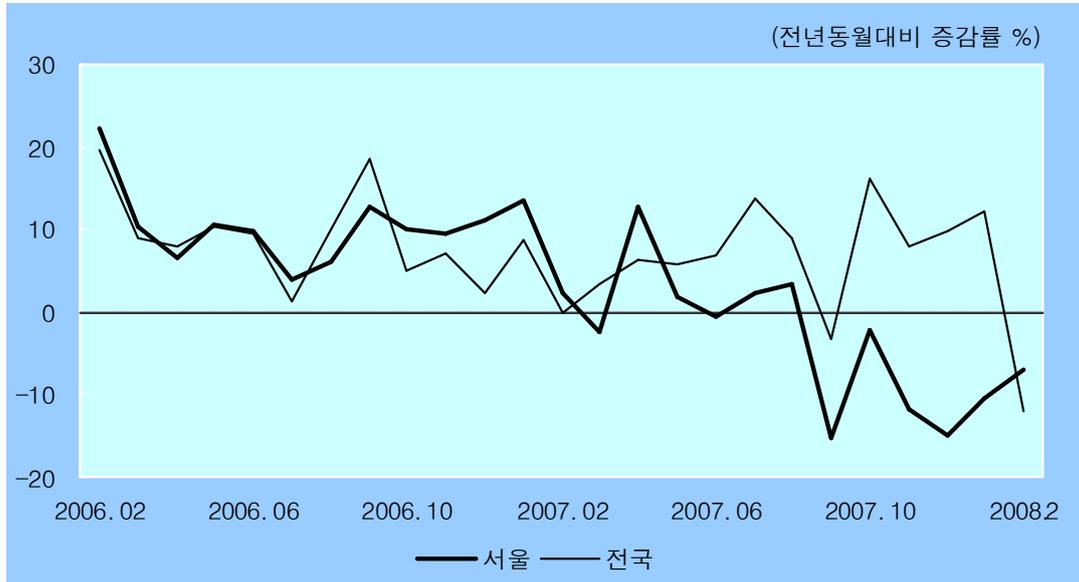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2월	10월	11월	12월	1월p	2월p	
전 년 동 월 비	전국	-0.4 (0.5)	15.8 (15.2)	7.7 (-0.6)	9.6 (-3.8)	11.8 (2.0)	10.0 (-12.0)
	서울 (제조업)	-7.4 (-13.2)	-2.6 (13.3)	-12.5 (-6.4)	-15.6 (-2.1)	-11.4 (2.2)	-7.8 (-12.1)
	중공업	-16.5 (-19.1)	-13.1 (17.2)	-24.2 (-9.1)	-27.2 (5.2)	-25.3 (-10.5)	-18.0 (-6.4)
	경공업	-3.7 (-11.0)	5.1 (10.9)	-3.6 (-4.8)	-5.8 (-6.3)	-0.3 (-0.1)	0.5 (-15.6)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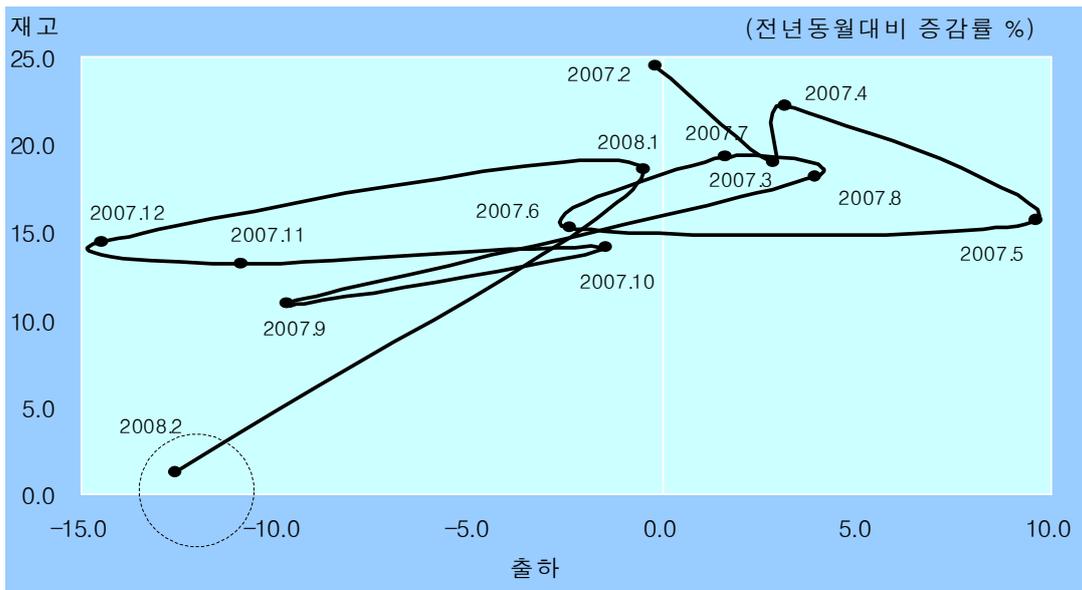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2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누증 단계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98.1(NSA, 2005=100)으로 전년 동월대비 3.7% 감소.
 - 총출하는 전년동월비 3.7% 감소했으며 전월비로는 전월비로는 12.6% 감소함
 - 업종별로 전기장비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 금속가공 등에서 감소함
 - 출하는 전년동월비 감소하고 재고는 전년동월비 증가하여 재고누증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상승

- 2월 생산자제품 재고는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등의 재고 증가로 전월대비 2.9% 증가함
- 전월대비로는 1차 금속, 영상음향통신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의복 및 모피 등의 증가로 8.5% 증가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20.4% 상승한 147.5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1.9% 증가한 146.6%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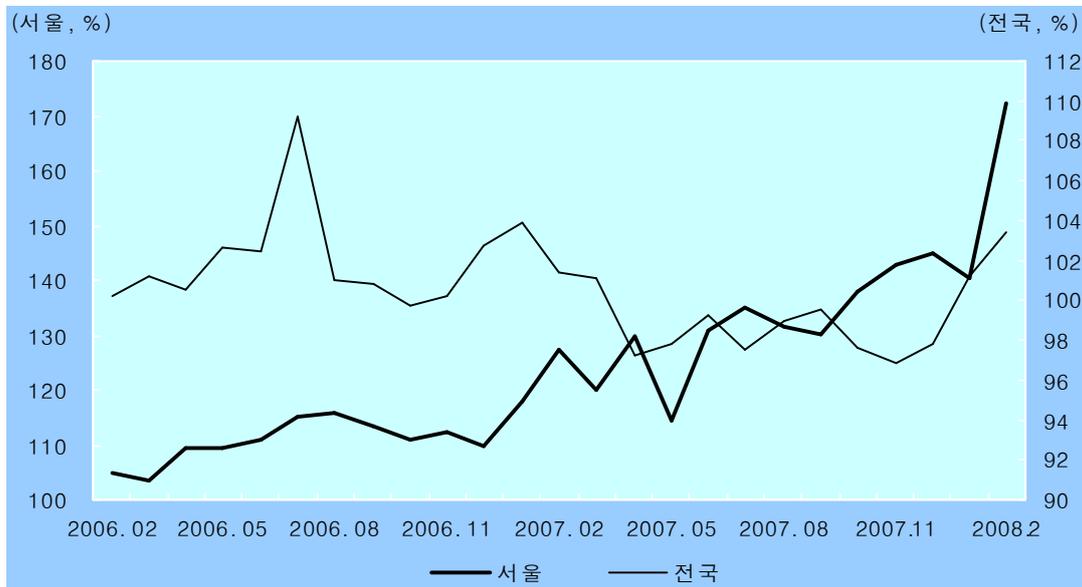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	
	2월	10월	11월	12월	1월p	2월		
재고율	전국	99.6	97.7	96.8	97.9	99.4	103.4	4.0
	서울	200.0	121.5	130.8	137.5	149.0	172.2	23.2
	중공업	240.2	118.0	123.6	122.5	147.5	167.7	20.2
	경공업	185.6	123.3	133.4	145.8	148.6	174.7	26.1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2월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 대형소매점 전년동월대비 판매액 증가

- 2월 소비재판매액은 전월대비 0.9% 증가, 전년동월대비로는 3.0% 증가함
- 전월대비 증가는 컴퓨터, 통신기기,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와 신발·가방, 주방용품,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 증가에 기인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 2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3274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4.4% 증가하여 소폭 증가함
- 백화점부문의 경우 설 특수의 이동(06년 1월→07년 2월)에 따른 음식료품 및 화장품, 서적·문구류 등 선물용품 판매호조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함
- 대형마트부문은 설 특수의 이동에 따른 음식료품 판매 증가 및 의복, 가방, 신발 등 신학기용품 판매호조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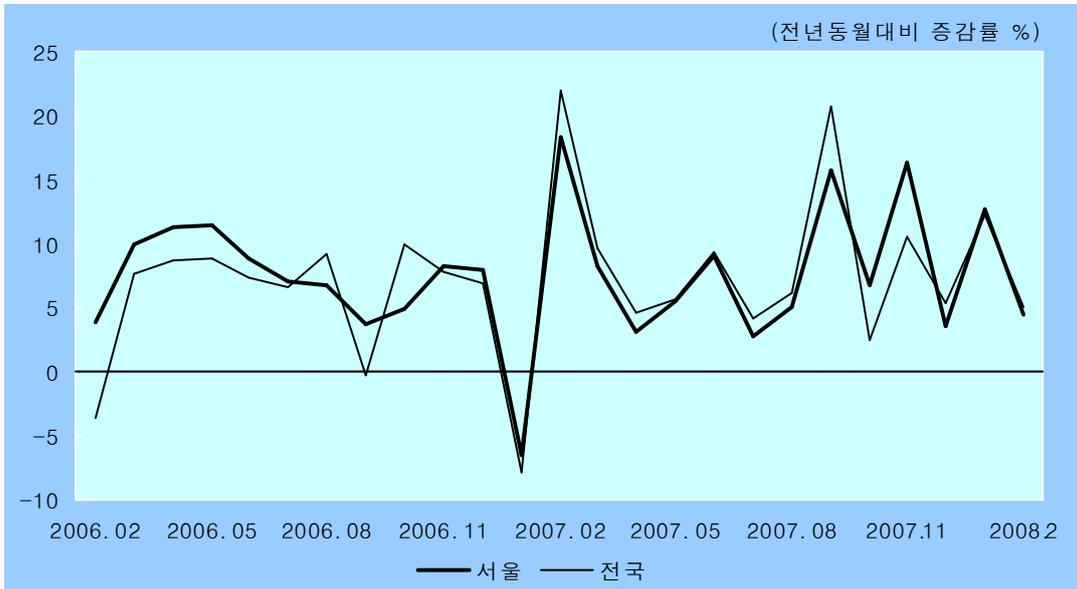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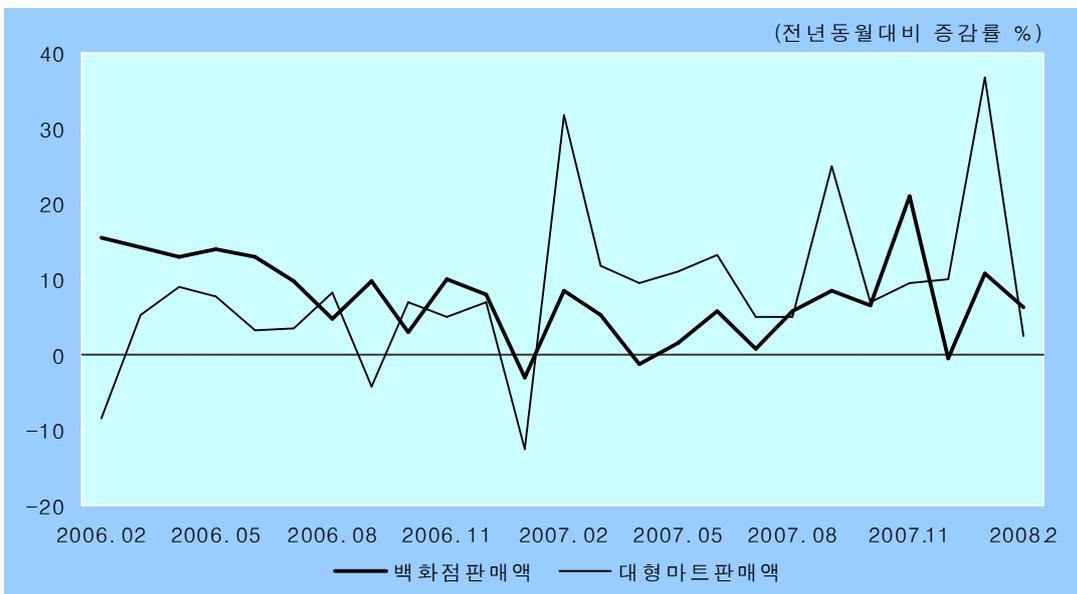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p
판매액	전국	3,945.1 (22.0)	4090.1 (2.5)	4190.3 (10.5)	4600.4 (5.3)	4255.3 (12.2)	4137.5 (5.0)
	서울	1,274.0 (18.6)	1408.6 (6.8)	1486.2 (16.4)	1609.5 (3.5)	1411.3 (12.6)	1327.4 (4.4)
	백화점	664.8 (9.2)	833.6 (6.6)	908.5 (21.1)	961.4 (-0.5)	803.3 (10.8)	701.7 (6.2)
	대형마트 (할인점)	567.3 (31.5)	575.0 (7.1)	577.6 (9.6)	648.1 (10.0)	608.0 (15.0)	625.6 (2.5)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3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3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3.9%, 전년동기대비 3.8% 각각 상승함
- 전월에 비하여 식료품·비주류음료는 하락하였으나, 주거 및 수도·광열, 가구집기, 가
사용품, 교통, 교육, 외식·숙박 등이 상승하였음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3%, 전년동월대비 4.9% 각각 상승함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3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2005=100)로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3.6% 각
각 상승함
- 주요도시의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는 서울은 전도시 평균(0.9%) 보다 낮게 상승함
- 인천, 울산은 전도시 평균보다 높게 상승하였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전도시 평
균보다 낮게 상승하였음
- 배추, 무, 돼지고기 등이 내린 농축산물은 하락하였으나, 국수, 라면, 금반지 등이 오른
공업제품의 상승, 전세·월세가 오른 집세, 납입금(국공립대)등이 오른 공공서비스, 학
원비, 납입금(사립대), 외식 등이 오른 개인서비스 부문이 각각 상승하여 전체적으로는
전월대비 0.7% 상승함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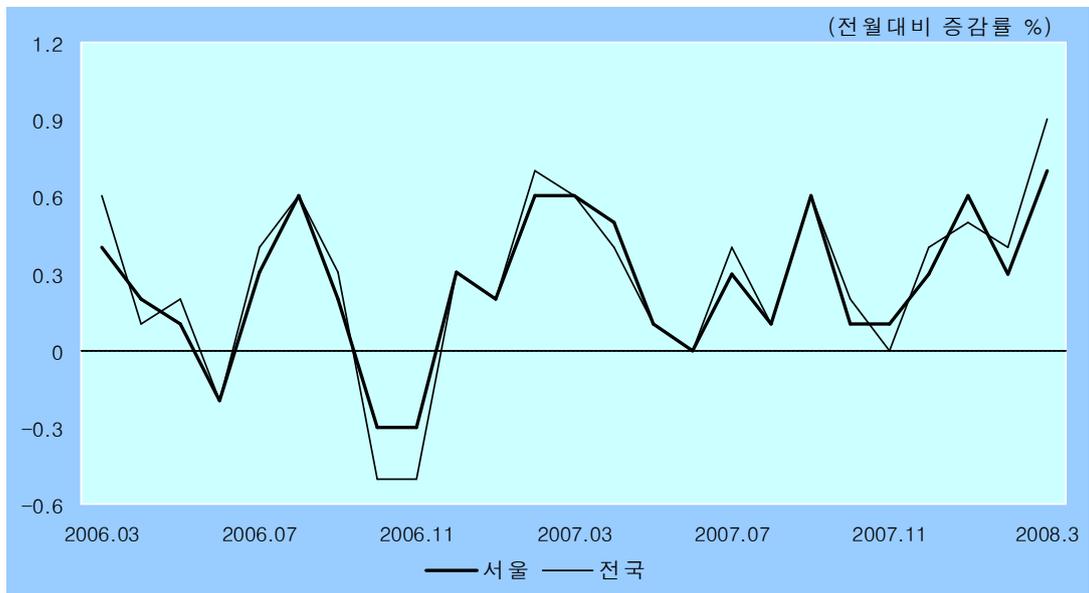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9%(전국:1.3%), 전년동월대비 4.3%(전국:4.9%) 각각 상승함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4.4%(전국:-4.5%) 하
락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5.1%(전국:-3.8%) 하락함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비	전국	0.6 (2.2)	0.2 (3.0)	0.0 (3.5)	0.4 (3.6)	0.5 (3.9)	0.4 (3.6)	0.9 (3.9)	
	서울	0.6 (2.3)	0.1 (3.0)	0.1 (3.4)	0.3 (3.4)	0.6 (3.8)	0.3 (3.5)	0.7 (3.6)	
	상품 성질별	상품	0.1 (1.7)	0.3 (3.0)	0.0 (4.1)	0.5 (4.2)	0.8 (4.8)	0.1 (3.8)	0.2 (3.9)
		서비스	0.9 (2.6)	0.0 (2.9)	0.2 (3.1)	0.2 (3.1)	0.4 (3.2)	0.4 (3.2)	0.9 (3.2)
	생활물가	1.1 (2.6)	0.3 (3.9)	0.0 (4.7)	0.3 (3.4)	0.4 (4.9)	0.3 (4.4)	0.9 (4.3)	
	신선식품	-1.8 (2.6)	1.3 (10.1)	-6.3 (10.7)	0.3 (3.4)	-1.5 (4.3)	-0.2 (-2.5)	-4.4 (-5.1)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3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비 소폭하락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2008년 3월 경제활동인구는 24,11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4천명(0.6%)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117천명으로 83천명(0.6%)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9,997천명으로 71천명(0.7%) 증가하였음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소폭하락**
 - 2008년 3월중 15세 이상 인구는 8,24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9천명(0.8%), 전월대비 3천명(0.0%)이 각각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인구는 5,14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천명(1.0%), 전월대비 56천명(1.1%)이 각각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전월대비 0.6%포인트 각각 증가하였음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0.8 (1.8)	0.9 (0.6)	1.0 (0.0)	0.9 (-2.0)	0.7 (-1.1)	0.7 (-0.1)	0.6 (1.7)
	서울	-1.1 (0.3)	0.5 (0.2)	0.2 (0.0)	-0.1 (-1.2)	-0.1 (0.0)	0.2 (-0.7)	1.0 (1.1)
	남자	-1.2 (0.4)	0.4 (-0.2)	0.7 (0.2)	0.2 (-1.0)	0.0 (0.0)	-0.3 (-0.5)	0.2 (0.9)
	여자	-0.8 (0.2)	0.5 (0.8)	-0.5 (-0.2)	-0.5 (-1.3)	-0.3 (0.0)	0.9 (-0.9)	2.1 (1.4)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1.4	62.3	62.2	61.0	60.3	60.1	61.1
	서울	62.3	63.1	63.1	62.3	62.2	61.8	62.4
	남자	74.5	74.6	74.7	73.9	73.6	73.2	73.8
	여자	50.9	52.4	52.2	51.5	51.4	50.9	51.6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취 · 업 · 자 |

3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소폭 상승

■ 전국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08년 3월 취업자는 23,30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4천명(0.8%)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58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3천명(0.8%) 증가하였고, 여자는 9,717천명으로 71천명(0.7%) 증가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10대, 40대, 50대, 60세이상에서 증가하였음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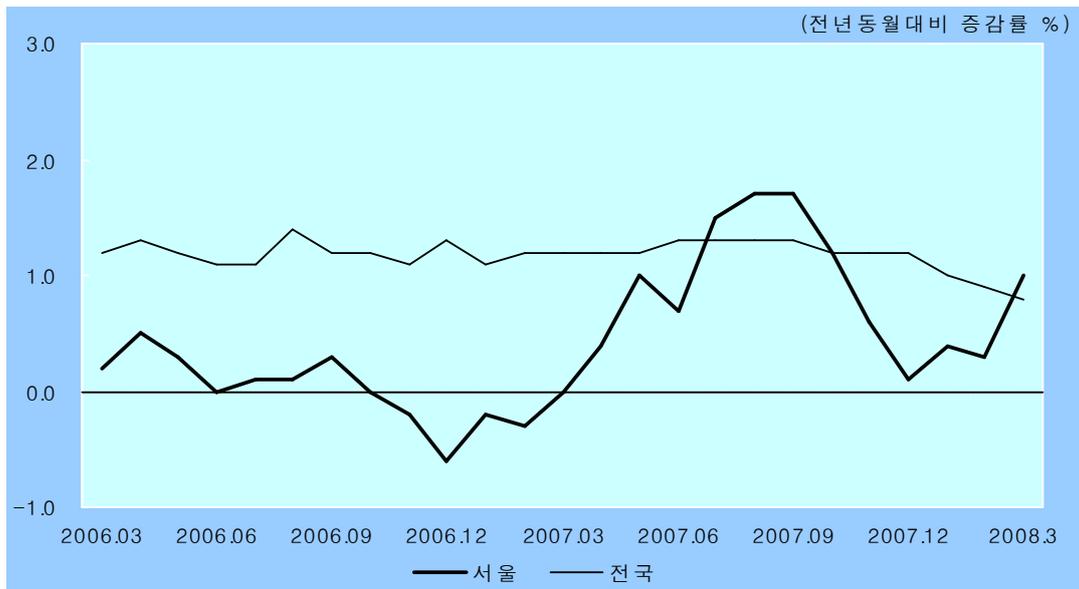
- 2008년 3월중 취업자는 4,93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천명(1.0%), 전월대비 72천명(1.5%)이 각각 증가하였음
- 성별로보면 남자는 2,828천명, 여자는 2,10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2천명(0.4%), 여자는 39천명(1.9%)이 각각 증가하였음
- 전월대비 남자는 42천명(1.5%), 여자는 30천명(1.5%)이 각각 증가하였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6천명(5.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5천명(1.9%), 도소매·음식숙박업 12천명(0.9%)이 각각 증가하였고, 농림어업 4천명(-58.6%), 건설업 11천명(-2.5%), 제조업 7천명(-1.0%)이 각각 감소하였음
- 전월대비로는 농림어업 1천명(52.6%), 제조업 53천명(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1천명(1.1%), 도소매·음식숙박업 8천명(0.6%), 건설업 2천명(0.5%)이 각각 증가하였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3천명(-2.3%)이 감소하였음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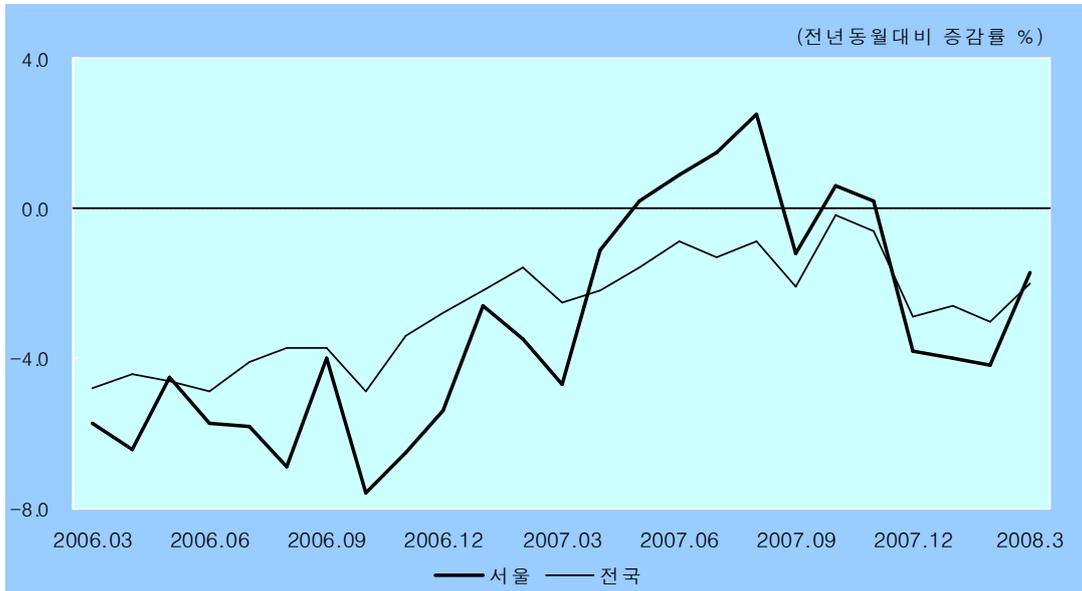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취업자	전국	1.2 (2.0)	1.2 (0.5)	1.2 (0.0)	1.2 (-2)	1.0 (-1.3)	0.9 (-0.3)	0.8 (1.8)
	서울	0.0 (0.8)	1.2 (0.1)	0.6 (0.0)	0.1 (-1.3)	0.4 (-0.1)	0.3 (-1.0)	1.0 (1.5)
	남자	-0.4 (0.8)	1.2 (0.1)	1.4 (0.3)	0.9 (-1.2)	1.1 (-0.2)	-0.3 (-0.9)	0.4 (1.5)
	여자	0.5 (0.7)	1.3 (0.1)	-0.5 (-0.5)	-0.8 (-1.4)	-0.5 (0.1)	1.1 (-1.1)	1.9 (1.5)
청년층 취업자	전국	-2.5 (-2.2)	-0.2 (1.3)	-0.6 (0.6)	-2.9 (-1.6)	-2.6 (2.5)	-3.0 (-2.5)	-2.0 (-1.2)
	서울	-4.7 (-2.1)	0.6 (-0.5)	0.2 (1.0)	-3.8 (-3)	-4.0 (3.5)	-4.2 (-3.2)	-1.7 (0.5)
고령층 취업자	전국	5.6 (7.2)	2.6 (0.4)	2.0 (-2.1)	3.4 (-6.5)	3.0 (-4.3)	2.3 (0.4)	3.9 (5.2)
	서울	6.1 (2.2)	2.5 (-2.1)	0.7 (-1.6)	-0.5 (-2.8)	1.3 (-0.1)	0.1 (-1.7)	2.9 (2.5)
	55-59세	1.6 (3.0)	5.4 (1.5)	2.7 (-1.3)	5.4 (-0.7)	7.2 (-0.5)	8.3 (0.0)	7.3 (1.9)
	60세 이상	9.9 (1.7)	0.3 (-4.7)	-0.9 (-1.7)	-5.1 (-4.6)	-3.1 (-1.1)	-5.9 (-3.1)	-2.4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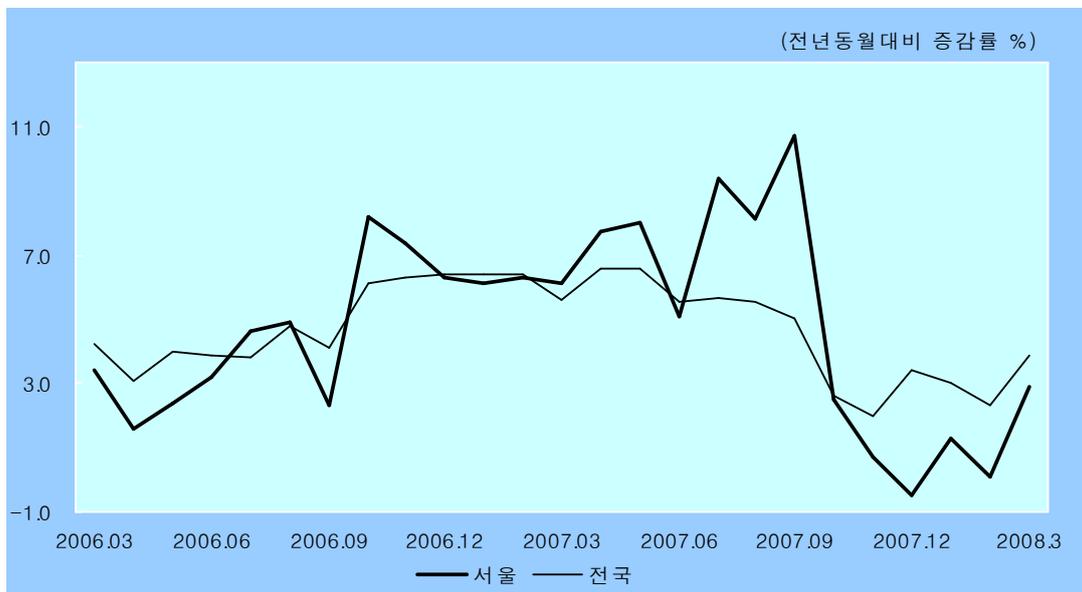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서비스·판매종사자, 전문·기술·행정관리자, 사무종사자는 증가

- 취업자를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서비스·판매종사자 58천명(4.7%), 전문·기술·행정관리자 50천명(3.3%), 사무종사자 18천명(2.3%)이 각각 증가하였고,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천명(-52.5%),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71천명(-5.1%)이 각각 감소하였음
- 전월대비로는 서비스·판매종사자 27천명(2.1%),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8천명(1.9%),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8천명(1.4%), 사무종사자 1천명(0.1%)이 각각 증가하였고,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23.7%)이 감소하였음

■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 지속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308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62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16천명(1.2%), 임금근로자는 35천명(1.0%)이 각각 증가하였음
- 전체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26.5%, 임금근로자 73.5%로 나타났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22천명(2.0%)이 증가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7천명(-3.3%)이 감소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27천명(7.2%)이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 80천명(-6.2%), 일용근로자 12천명(-2.2%)이 각각 감소하였음
- 전월대비로는 비임금근로자 44천명(3.5%), 임금근로자 29천명(0.8%)이 각각 증가하였음

■ 36시간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3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명(-1.9%)이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35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7천명(1.6%)이 증가하였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산업별	제조업	-11.1 (-1.0)	-8.0 (1.9)	-9.8 (-8.5)	-8 (0.2)	-8.5 (0.3)	-9.6 (-4.4)	-1.0 (8.4)
	SOC 및 기타서비스업	2.1 (1.0)	3.1 (0.1)	2.5 (1.4)	1.6 (-1.5)	2.1 (-0.1)	2.1 (-0.5)	1.5 (0.4)
	사업·개인·공공서비스	6.7 (1.7)	8.2 (1.3)	4.5 (-0.7)	4.7 (-1)	4.1 (-0.4)	2.5 (-1.4)	1.9 (1.1)
	도소매·음식숙박	-2.2 (0.4)	-5.5 (-1.4)	-3.5 (2.7)	-3 (2)	-1.3 (-0.7)	0.7 (-0.1)	0.9 (0.6)
	전기·운수·통신·금융	-1.3 (-4.2)	7.1 (-0.3)	9.7 (6.6)	2.4 (-6.8)	3.0 (2.0)	3.0 (-0.8)	5.0 (-2.3)
	건설업	1.5 (7.1)	5.0 (-0.1)	4.8 (0.5)	2.3 (-7.9)	3.1 (1.0)	4.0 (3.0)	-2.5 (0.5)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9 (0.0)	5.8 (-0.8)	3.2 (-0.9)	6.8 (1.1)	4.6 (-0.5)	1.4 (-2.4)	3.3 (1.9)
	기능·기계작·조립·단종사자	-1.4 (1.3)	-1.4 (0.9)	-2.1 (-2.5)	-2.5 (-3.9)	-2.5 (-0.2)	-5.2 (-1.9)	-5.1 (1.4)
	서비스·판매종사자	-1.2 (2.9)	-0.3 (0.8)	3.2 (4.8)	-2.5 (-2)	1.8 (0.2)	5.5 (-0.3)	4.7 (2.1)
	사무종사자	0.4 (-1.9)	0.3 (0.6)	-3.4 (-1.3)	-3.1 (-0.1)	-3.9 (0.6)	0.3 (2.1)	2.3 (0.1)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1.0 (0.2)	2.8 (0.3)	1.5 (-0.7)	1.6 (-1)	0.9 (0.6)	0.4 (-1.5)	1.0 (0.8)
	비임금근로자	-2.6 (2.4)	-3.1 (-0.4)	-1.9 (1.9)	-3.8 (-2.1)	-0.8 (-1.9)	0.2 (0.4)	1.2 (3.5)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실·업·률 |

3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의 실업률 전월대비 소폭 하락

- 2008년 3월 실업자는 81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천명(-3.6%)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2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천명(-5.4%) 감소하였고, 여자는 281천명으로 변동이 없었음
- 실업률은 3.4%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7%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고, 여자는 2.8%로 변동이 없었음
- 계절조정 실업률은 3.1%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20대와 40대에서 증가한 반면, 그 외 모든 연령계층에서는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20대와 40대에서 상승한 반면, 그 외 모든 연령계층에서는 하락하였음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하락, 전월대비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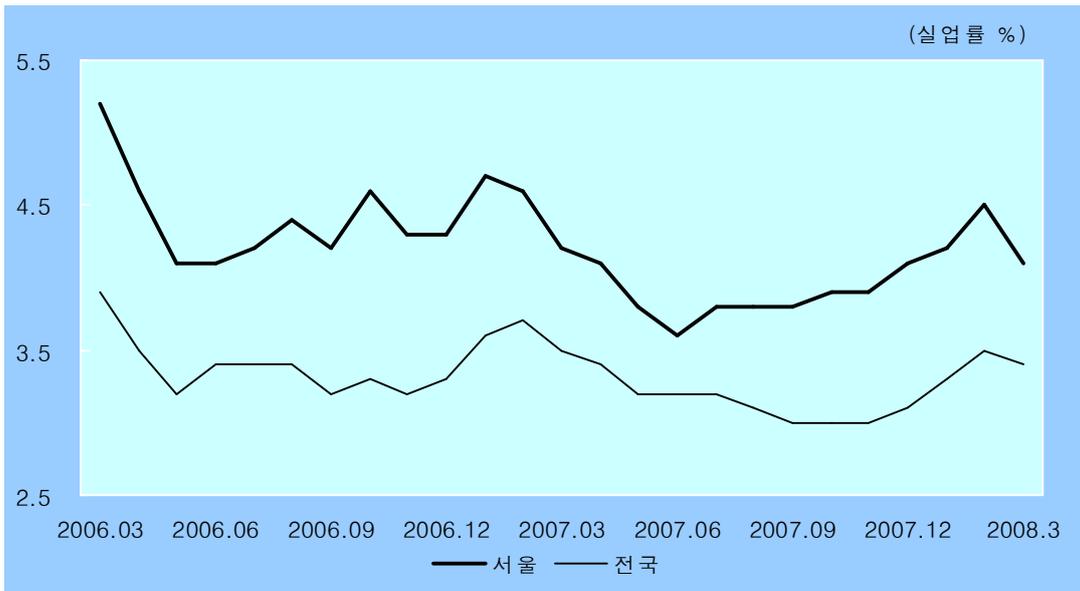
- 2008년 3월중 실업자는 212천명, 실업률은 4.1%로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0.2천명(0.1%)이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0.1%포인트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29천명으로 7천명(-5.1%)이 감소하였고, 여자는 84천명으로 7천명(9.3%)이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자는 0.2%포인트 감소하였고, 여자는 0.2%포인트 증가하였음
- 전월대비 실업자는 16천명(-7.0%), 실업률은 0.4%포인트 각각 감소하였음
- 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천명(-11.5%)이 감소하였고, 여자는 1천명(0.7%)이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자는 0.6%포인트 감소하였고, 여자는 동일하게 나타났음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국		3.5	3.0	3.0	3.1	3.3	3.5	3.4
서울		4.2	3.9	3.9	4.1	4.2	4.5	4.1
성 별	남자	4.6	4.3	4.2	4.4	4.6	5.0	4.4
	여자	3.6	3.3	3.6	3.7	3.6	3.8	3.8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2008년 2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2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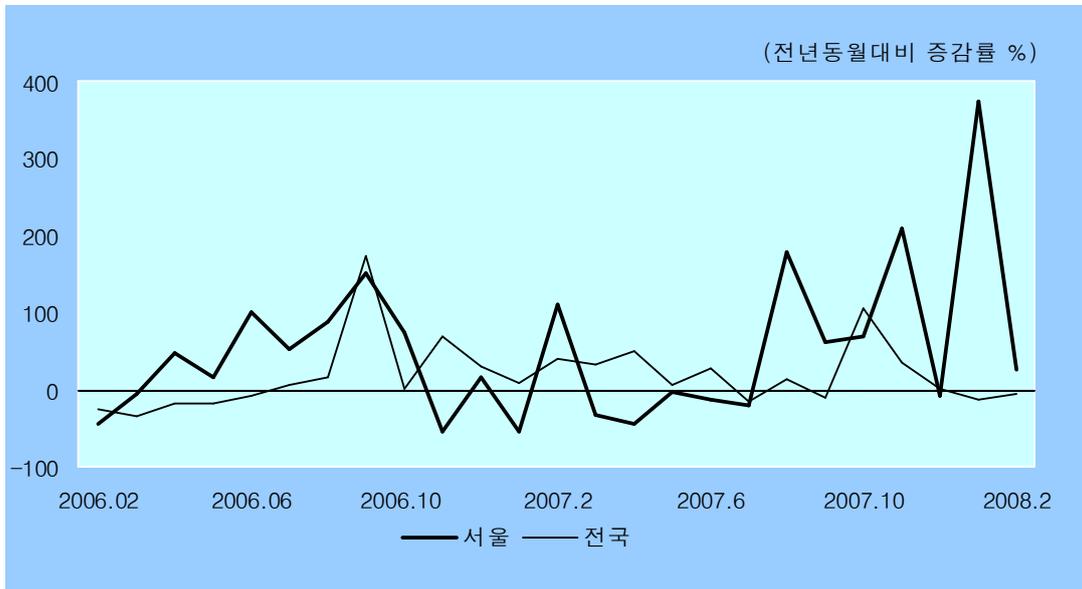
- 2월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5조 9,31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2% 감소하였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1조 78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2%가 증가하였음
(공공부문은 11.5%가 감소, 민간부문에서 30.3% 증가)
- 공공부문의 건설수주액 감소는 신규주택 및 관공서 공사부문의 감소가 원인이며, 민간부
문은 사옥 신증축 등 사무실 부문의 발주 증가가 건설수주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18.2%를 차지하고 있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7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국	6325.5	10,735	12,311	16,272	5,570	5,931	-6.2	6.5	
서울	859.3	2,144	1,362	1,581	1,997	1,078	25.5	-46.0	
발주 자별	공공	99.5	163.1	265.7	226.2	63	88	-11.5	39.7
	민간	759.8	1,967.9	657.9	1,349.6	1,933	990	30.3	-48.8
공종 별	건축	815.4	2,086.3	917.9	1,479.3	1,953	1,031	26.5	-47.2
	토목	36.5	54.0	442.3	96.6	43	46	28.1	7.0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08년 3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1,706.4천㎡로 전년동월대비 267.9% 증가함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단독의 신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32.1% 증가하고, 아파트는 3.1% 증가하였으며, 연립은 전년동월대비 -97.9%로 하락하였음. 전체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65.0% 하락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상업(547.5%), 문교 및 사회(1681.2%), 기타(645.1%)가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 412.3% 증가함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서울	463.8	813.9	3,182.2	1,534.8	2,919.6	1,706.4	267.9	-41.6	
주거용	소계	140.2	29.5	36.9	130.6	252.9	49.0	-65.0	-80.6
	단독	5.6	1.7	11.5	7.9	6.0	7.4	32.1	23.3
	연립	96.2	20.6	16.7	89.7	1.3	2.0	-97.9	53.8
	아파트	38.4	7.2	8.7	33.0	252.5	39.6	3.1	-84.3
비주거용	소계	323.5	784.5	3,065.4	1,404.2	2,666.7	1,657.4	412.3	-37.8
	상업	160.1	696.6	2,223.9	872.2	1,862.2	1,036.7	547.5	-44.3
	공업	125.9	0.0	91.1	116.9	48.6	50.6	-59.8	4.1
	문교/사회	28.2	87.2	665.1	361.0	738.9	502.3	1681.2	-32.0
	기타	9.1	0.6	85.2	54.1	16.9	67.8	645.1	301.2

자료: 서울시 건축과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3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 3월 기준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 3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8% 상승함으로서 상승폭이 확대됨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이사철 성수기를 맞아 소형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재개발 및 뉴타운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단독연립주택의 상승세가 지속되어 전월대비 0.8% 상승함

■ 3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 서울은 전월대비 1.4% 상승한 가운데 강북지역이 2.1%, 강남지역이 0.9% 상승으로 중구와 구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됨
- 강북지역에서는 소형아파트 밀집지역인 노원구가 상계뉴타운과 당현천 개발 호재 등으로 투자수요와 이사철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5.7%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도봉구가 아파트 매물부족으로 인한 연립주택 수요 증가로 2.2% 상승하였음
- 강남지역에서는 금천구가 신안산선 개통과 도화부대 이전에 따른 개발 호재로 2.6% 상승하였고 강서구는 뉴타운 지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1.3% 상승하였음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7.12=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월	2월	3월	3월	
전국	98.3	100.6	101.4		3.2
서울	97.1	101.4	102.8		5.9
아파트	99.3	101.0	101.0		1.7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5.0	102.1	104.2	9.7
	강남	99.0	100.6	101.5	2.5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 강북 지역은 전월에 비해 주택매매가격이 2.1%가 상승하여 서울 전체 상승률(1.4%)를 상회하였음
- 노원구가 5.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 도봉구(2.2%), 중랑구(2.0%), 동대문구(2.0%)의 순서임
- 반면 중구와 성동구(0.5%), 강북구(0.7%), 광진구(0.8%), 마포구(0.9%)는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하회하고 있음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금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 강남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금천구(2.6%)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구에서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1.4%)을 하회하고 있음. 이 중 강서구(1.3%), 관악구(1.3%), 구로구(1.2%)가 서울 상승률에 비교적 근접하고 있음
- 특히 서초구의 상승률은 0.0%였으며, 영등포구와 강동구(0.3%), 강남구(0.4%) 등이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음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1.4% 상승하였으며, 전월의 상승폭보다 확대되었음
- 강북은 2.5%, 강남은 0.5% 상승하여 지난달에 이어 강북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함
- 구별로 보면 노원구(5.6%), 중랑구(2.9%), 금천구(2.3%), 동대문구(1.9%), 도봉구(1.8%), 성북구(1.5%)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함
- 반면 서초구(0.0%)는 변동이 없고, 송파구(-0.1%)는 전월에 비해 가격이 하락함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1,800만원) 이상인 구는 강남구(3,511만원), 서초구(2,743만원), 송파구(2,514만원), 용산구(2,506만원), 양천구(2,056만원), 강동구(1,903만원), 광진구(1,865만원)임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구는 은평구(999만원), 금천구(955만원)임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3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 3월 기준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폭은 확대

- 3월중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0.3%)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된 0.6% 상승함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봄 이사철과 결혼시즌에 따른 계절적 수요와 재개발 이주수요 증가로 거래가 활발해지며 전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음

■ 3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 3월 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9%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강북 지역이 1.2%, 강남 지역이 0.6%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음
- 강북 지역에서는 성북구가 길음 뉴타운 및 주변 재개발 지역 이주수요 증가로 2.0% 상승하고, 종로구도 전세매물 소진으로 2.0% 상승했음. 노원구는 신혼부부 이주수요와 학군수요 증가로 1.8% 상승하였음
- 강남 지역에서는 금천구가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가 동반 상승으로 1.3%, 동작구가 단독연립주택 전세수요 증가로 1.1% 상승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7.12=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월	2월	3월	
전국	98.6	100.4	101.1	2.5
서울	97.9	100.9	101.8	4.0
아파트	99.4	100.5	101.2	1.4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96.6	101.3	102.5	6.1
강남	99.1	100.5	101.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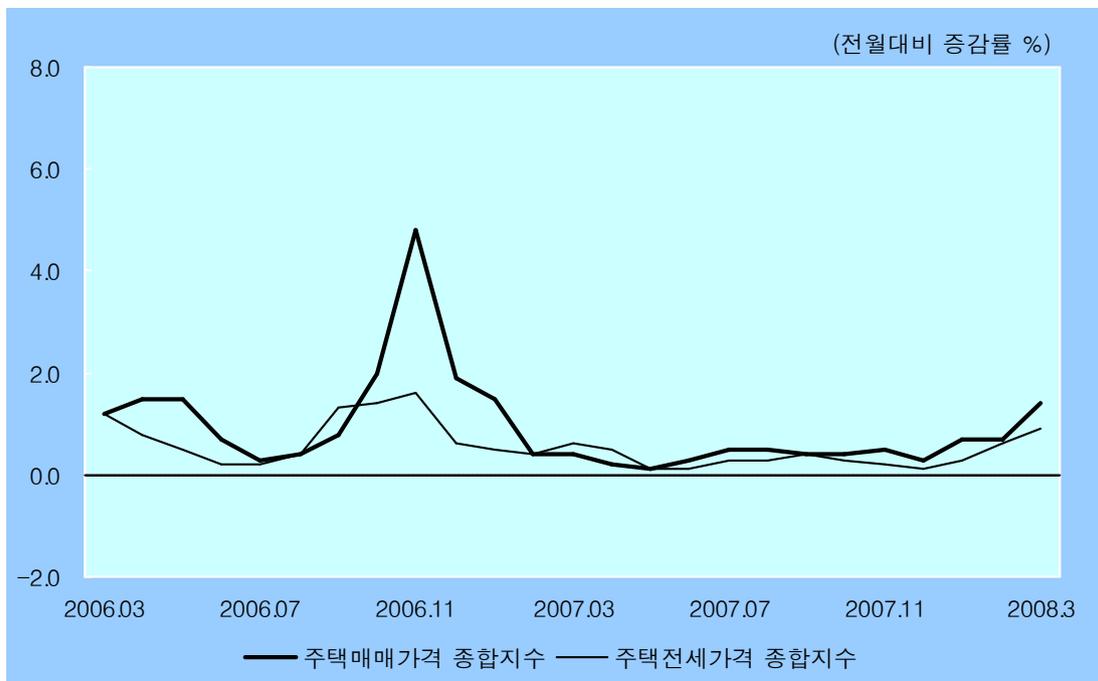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주요 상승지역은 성북구, 종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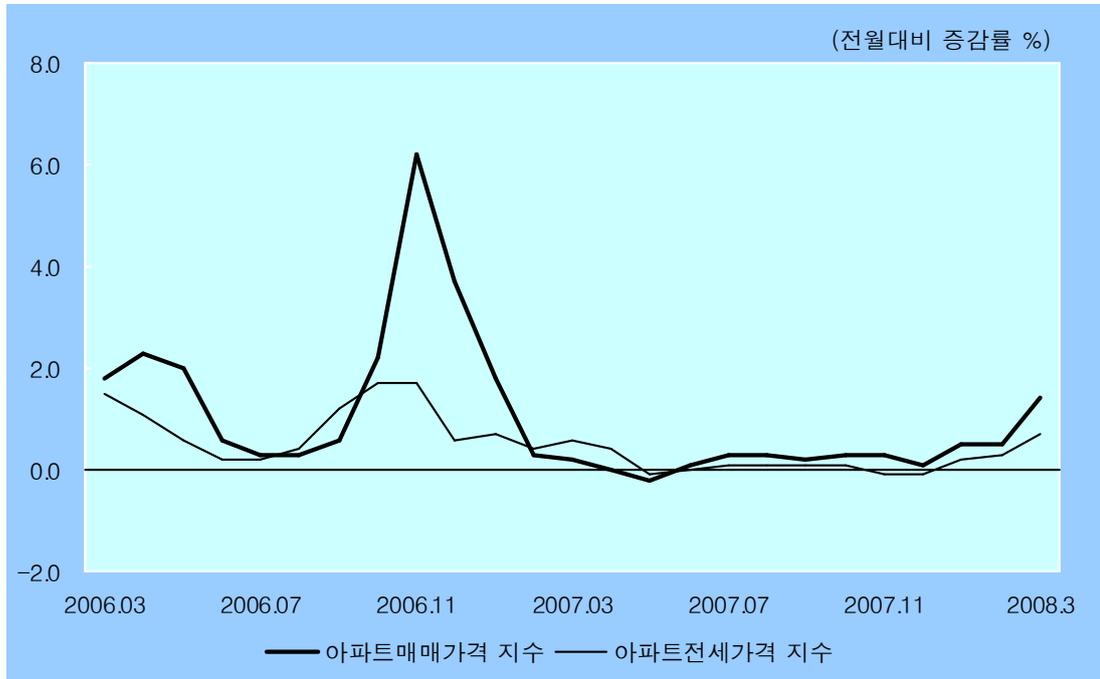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성북구와 종로구(2.0%)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노원구(1.8%), 동대문구(1.6%), 도봉구(1.5%), 서대문구(1.3%), 광진구(1.2%), 은평구(1.2%)에서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0.9%)을 상회함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하락세가 지속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2006년 11월 이후 45% 미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약한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2008년 3월 현재 41.2%까지 하락하였음
- 2008년 3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1.2%로 전월에 비해 0.5%p 하락하였음
- 서울은 전국 평균 53.6%를 12.4%p 밑돌고 있으며 전국과의 격차(9월:11.5%p 10월:11.5%p, 11월:11.7%p, 12월: 11.8%p, 1월: 12.0%p, 2월: 12.1%p)는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냄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45.9%, 강남은 37.2% 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8.7% 수준임
- 2006년 12월 강북지역은 50% 수준 밑으로 하락한 이후 비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매매가격 상승이 높았음을 반영함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3월 국고채 유통수익률 소폭 상승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소폭 상승
 -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3월 들어 환율 상승, 고유가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소폭 상승(08.2월말 4.97% → 3월말 5.10% → 4.8일 5.03%, 2월말 대비 +6bp)
- CD(91일) 유통수익률 상승세
 - CD 유통수익률은 기업의 월말 법인세 납부 등 계절적 요인으로 CD의 주된 수요처인 MMF가 감소하면서 중순 이후 상승(2월말 5.18% → 3.10일 5.17% → 3월말 5.38% → 4.8일 5.40%)
- 3월 기준 장·단기 금리차 소폭 확대
 - 3월말 장·단기 금리차는 CD의 유통수익률 상승세로 소폭 확대에 그침
- 3월 기준 KOSPI 지수 급락 후 상승
 - KOSPI 지수는 3월 중순까지 미국 경기침체 우려,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1,500대까지 급락하다, 3.18일 이후 미 연준의 시장안정화 조치 및 주요 투자은행의 손실규모 축소 예상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 등으로 1,700대로 상승(2월말 1,712p → 3.17일 1,574p → 3월말 1,704p)
- 3월중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
 - 3월중 외국인 투자자는 전월과 비슷한 순매도를 보였으나 중순 이후 순매수로 전환
 - 기관투자자는 순매수 규모를 확대
 - 기관투자자: 08.2월 +0.5조원 → 3월 +1.6조원
 - 개인투자자: 08.2월 +0.2조원 → 3월 +0.3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7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금 리	국고채(3년)	4.76	5.54	5.89	5.44	4.97	5.10	2.6
	CD(91일물)	4.94	5.43	5.73	5.81	5.18	5.38	3.9
	콜금리(1일)	4.61	5.00	4.99	4.99	4.97	4.97	0.0
	장·단기 금리차 ¹⁾	0.15	0.11	0.16	-0.37	-0.21	-0.28	33.3
주 가	KOSPI ²⁾	1,452.6	1,924.8	1,908.6	1,732.3	1,689.5	1,651.1	-2.3
	KOSDAQ ²⁾	649.0	755.7	722.3	667.1	647.4	627.5	-3.1
환율 (W/US\$) ²⁾	940.9	917.0	930.2	942.4	944.7	982.5	4.0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3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 유지

-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1월 -0.7조원 → 2월 +2.3조원 → 3월 +2.4조원)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은 전월(+1.5조원)과 비슷한 1.4조원 증가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월수준(+0.8조원)과 비슷한 1조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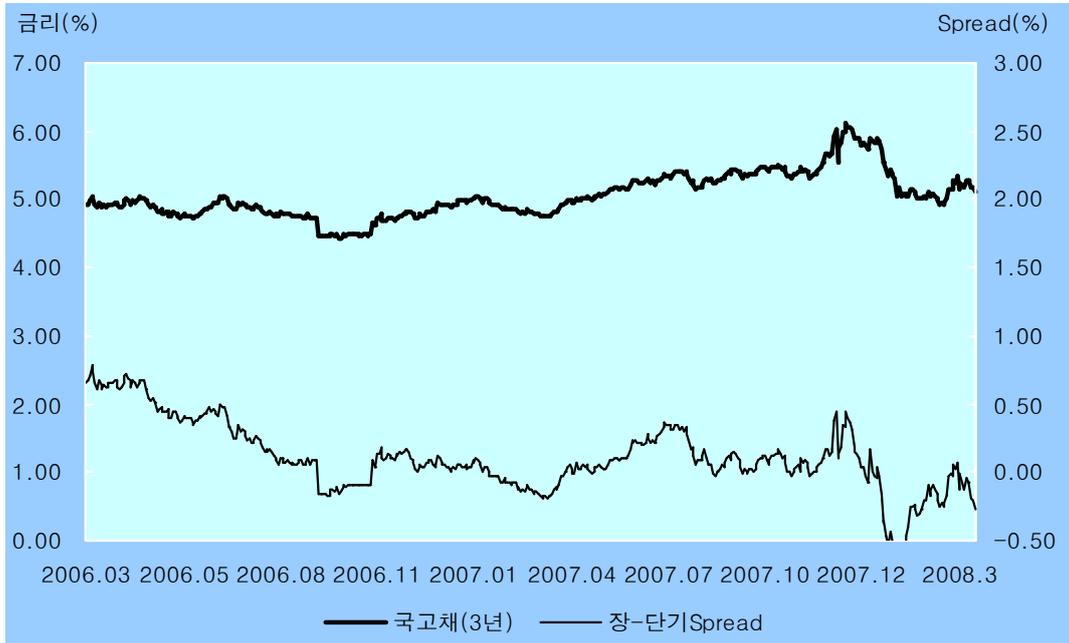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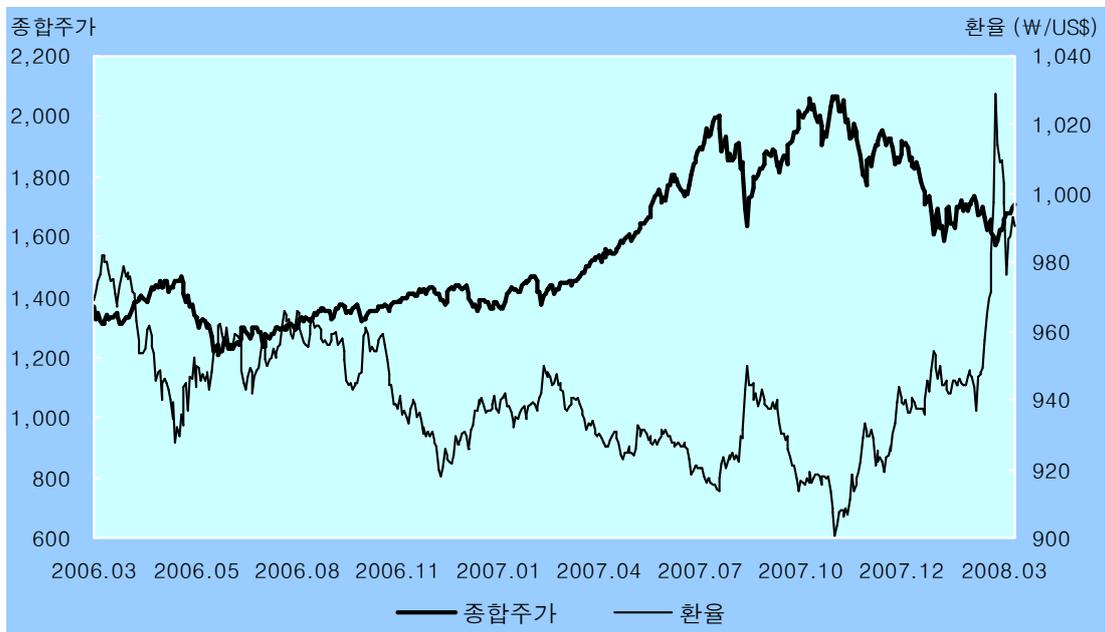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월말잔액		전 월비
	연중	11월	12월	1월	2월	3월	2008년		
							2월	3월	
가계대출 ¹⁾	17.8	3.3	-0.3	-0.7	2.3	2.4	365.1	367.4	0.6
주택담보대출 ²⁾	4.6	1.6	-0.0	0.8	0.8	1.0	223.3	224.3	0.4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3.0	1.7	-0.3	-1.5	1.5	1.4	139.9	141.3	1.0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2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소폭 증가

- 2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080조 5,721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 9,984억원이 증가함
- 2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32조 9,997억원이고, 전월대비 1조 908억원 증가하여 전월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음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2007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액
		2월	11월	12월	1월	2월	
전국	예금은행	708,048.2	807,189.4	803,724.1	815,649.1	822,528.9	6,879.8
	비은행기관	221,690.1	252,825.7	255,148.6	257,924.6	258,043.2	118.6
	합계	929,738.3	1,060,015.1	1,058,872.7	1,073,573.7	1,080,572.1	6,998.4
서울	예금은행	291,432.1	343,211.3	343,162.9	350,225.9	352,812.4	2,586.5
	비은행기관	64,338.3	79,830.4	79,473.8	81,683.0	80,187.3	-1,495.7
	합계	355,770.4	423,041.7	422,636.7	431,908.9	432,999.7	1,090.8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2월중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은 기존 수준 유지

- 2월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서울의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전월보다 0.1%p 상승한 58.7%를 기록하여 큰 변화없이 기존의 수준을 유지
- 전국적인 예금은행 예대율도 전월보다 0.1%p 하락한 86.8%를 기록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¹⁾ 추이

(단위 : %, %p)

	2007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증 감율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국	83.9	87.6	87.9	87.5	86.9	86.8	-0.1
서울	55.1	58.1	58.4	59.1	58.6	58.7	0.2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 · 업 · 동 · 향 |

2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감소

■ 전국 신설법인 수 감소

- 2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3,829개로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전년동월 대비 6.0% 감소하였음
- 업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3.1%)은 증가한 반면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사업(22.3%) 및 서비스업(2.9%)은 감소하였음
-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 64.5%, 제조업 18.8%,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사업 15.9%임

■ 서울 신설법인 수 감소

- 2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399개로 전월대비 -25.4%(-476개) 감소하였음
- 업종별로는 전월대비 서비스업(-24.5%), 제조업(-15.0%), 건설 및 설비업(-40.1%) 등 전업종이 감소함

■ 서울 서비스업, 건설 및 설비업 분야 신설법인 수 크게 감소

-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1,185개로 전월대비 -24.5%(-385개) 감소함
-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비 신설법인이 71개 감소(-40.1%)하여 서비스업, 제조업에 비해 감소폭이 컸음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7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2월	11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072	4,388	4,249	5,298	3,829	-243	-6.0	-1,469	-27.7
서울	1,524	1,617	1,520	1,875	1,399	-125	-8.2	-476	-25.4
서비스업	1,283	1,380	1,342	1,570	1,185	-98	-7.6	-385	-24.5
제조업	110	101	68	127	108	-2	-1.8	-19	-15.0
건설 및 설비업	129	133	110	177	106	-23	-17.8	-71	-40.1

주: (전월비)는 부지표입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상승

■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상승

- 3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0.02%)보다 0.01%p 상승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76개로, 전월(186개) 보다 10개 감소함
- 업종별로 제조업(68개→65개)과 건설업(40개→35개), 서비스업(70개→69개)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형태별로는 법인이 2개 (124개→126개) 증가하였으나 개인사업자는 12개(62→50개) 감소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 0.01% 보다 0.01%p 상승함
- 서울에 비해 지방은 0.09%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이 6개(66개→72개) 증가한 반면, 지방이 16개(120개→104개)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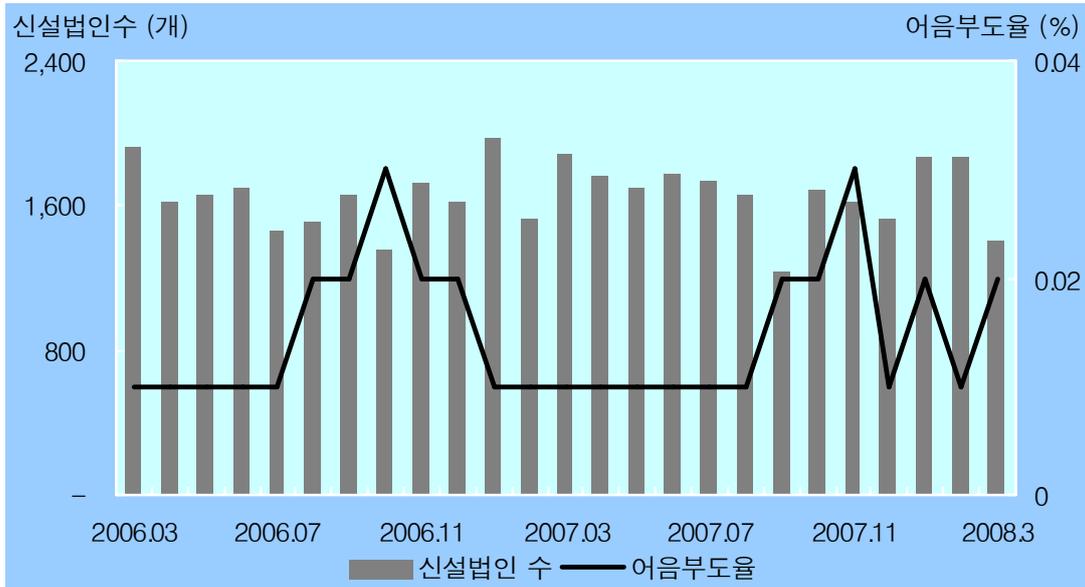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3월	12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1	0.03	0.03	0.02	0.03	0.01	50.0	0.02	200.0
	부도업체 수	216	178	193	186	176	-10	-5.4	-40	-18.5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1	0.02	0.01	0.02	0.01	100.0	0.0	100.0
	부도업체 수	65	62	67	66	72	6	9.1	7	10.8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자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건당 평균금액의 증가세

■ 보증 건수 및 금액 대폭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3월중 1,319건, 52,566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 34.2%, 금액 63.2% 증가함
- 일반보증의 지속적인 수요 증대로 인하여 전월대비 보증 건수 및 금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건당평균금액이 39.9백만원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1,863	978	838	597	983	1,319	336	34.2	-544	-29.2
금액	55,239	31,304	26,479	17,926	32,211	52,566	20,355	63.2	-2,673	-4.8
건당평균금액	29.7	32.0	31.6	30.0	32.8	39.9	7.1	21.6	10.2	34.3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전월수준의 업종비율 유지

- 3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도·소매업의 비중(금액기준)이 전월과 비교하여 1.5%p 감소하여 39.6%를 나타내며 대부분의 업종이 전월수준을 유지함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143	545	263	280	88	1,319
비율	10.9	41.3	19.9	21.2	6.7	100
금액	8,992	20,794	6,813	10,380	5,587	52,566
비율	17.1	39.6	13.0	19.7	10.6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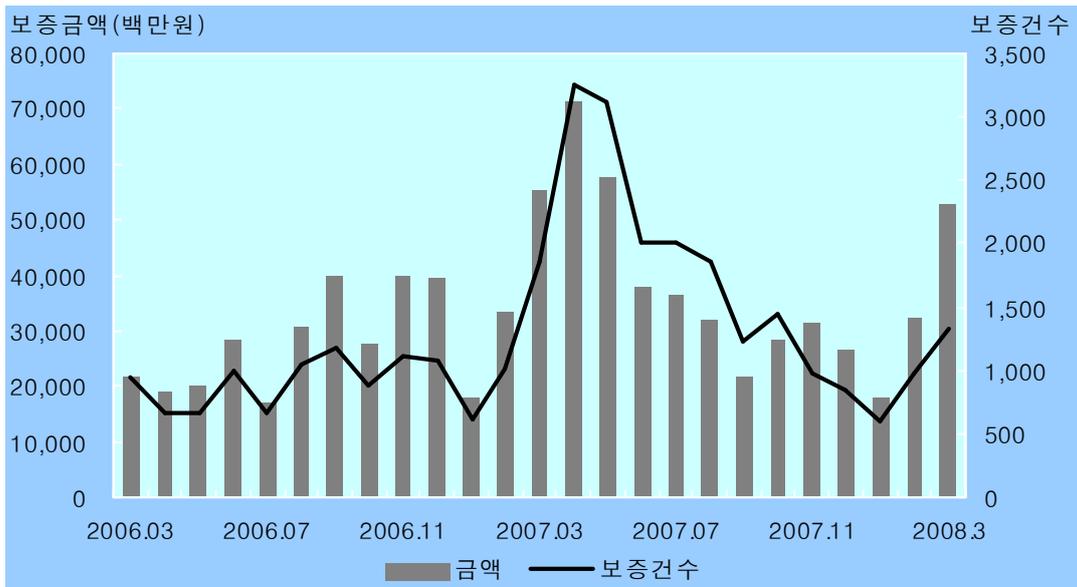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은 건당평균금액의 증가로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2개월 연속 감소하며 74.2%를 나타낸 반면, 소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전월대비 2.7%p 증가함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8.01	2008.02	2008.03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556	901	1,207	306
	비율	93.1	91.7	91.5	-0.2
	금액	15,843	24,788	38,974	14,186
	비율	88.4	77.0	74.2	-2.8
소기업	건수	30	57	86	29
	비율	5.0	5.8	6.5	0.7
	금액	1,159	4,655	9,010	4,355
	비율	6.5	14.4	17.1	2.7
중기업	건수	11	25	26	1
	비율	1.9	2.5	2.0	-0.5
	금액	924	2,768	4,582	1,814
	비율	5.1	8.6	8.7	0.1
합계	건수	597	983	1,319	336
	비율	100	100	100	0
	금액	17,926	32,211	52,566	20,355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 수입 높은 증가세

■ 전국 수출 높은 증가

- 3월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2% 증가한 55억 6,000만달러로, 원료 및 연료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석유 제품이 63.3% 증가한데 힘입어 수출품목군 중 가장 높은 54.8%의 증가율을 기록함
-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군인 중화학공업품(수출비중 82.4%)은 TV 등 가전제품 및 정밀기기가 각각 118.0% 및 65.7%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16.4%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
- 경공업품(수출비중 7.2%)은 귀금속보석류 및 섬유원료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목제품(-2.9%) 및 의류(-1.1%)의 부진 등으로 전체적으로 9.1%의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함

■ 전국 수입 증가 및 무역수지 적자 유지

- 3월 전국의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26.9% 증가한 368억 달러, 무역수지는 19억 달러가 감소하여 2007년 12월 이후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 원자재(수입비중 59.5%)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등 연료 수입급증(46.9%)으로 전체적으로 34.8%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소비자재(수입비중 10.2%)는 가전제품이 80.7%, 사료가 68.1%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26.7%의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자본재(수입비중 30.4%)는 정보통신기기(22.6%) 및 전자전자기기(13.0%)의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29.4%) 등의 수입감소로 전체적으로 11.1%의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함

■ 3월 기준 서울 수출은 증가세 유지

- 3월 서울의 수출은 컴퓨터와 같은 전자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기계류정밀기기가 각각 95.6%와 47.7%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18.0%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3월 기준 서울 수입은 크게 증가

- 서울은 반도체(수입비중 10.5%)와 철강재(수입비중 6.2%)가 각각 3억 9,600만달러와 1억 8,200만달러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9억 5,700만달러의 큰 증가액을 기록하였음
- 전년동월(54억6천만달러) 대비 금월(74억 3천만달러)의 수입 증가율도 35.9%에 달해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크게 증가하였음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7년 3월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30,486	34,444	35,837	33,030	32,323	31,157	36,046	5,560	18.2	4,889	15.7
	수입	29,056	32,654	33,707	33,896	36,109	32,406	36,863	7,807	26.9	4,457	13.8
서울	수출	2,340	2,438	2,515	2,299	2,905	2,934	2,761	421	18.0	-173	-5.9
	수입	5,469	6,416	6,409	6,528	7,380	6,437	7,431	1,962	35.9	994	15.4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3월		2007년 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편직물	187,186	-2.2	191,303	7.2
2	반도체	183,761	9.1	168,469	-5.9
3	자동차부품	133,619	11.9	119,446	32.8
4	컴퓨터	130,772	95.6	66,844	-17.6
5	고무제품	122,510	26.2	97,089	5.9
6	합성수지	112,807	39.4	80,910	-4.8
7	의류	97,998	-5.2	103,390	-29.2
8	무선통신기기	79,721	-20.9	100,763	15.9
9	자동차	75,636	47.7	51,210	31.6
10	인조장섬유직물	72,371	6.3	68,112	-0.6
	합계	1,196,381	207.9	1,047,536	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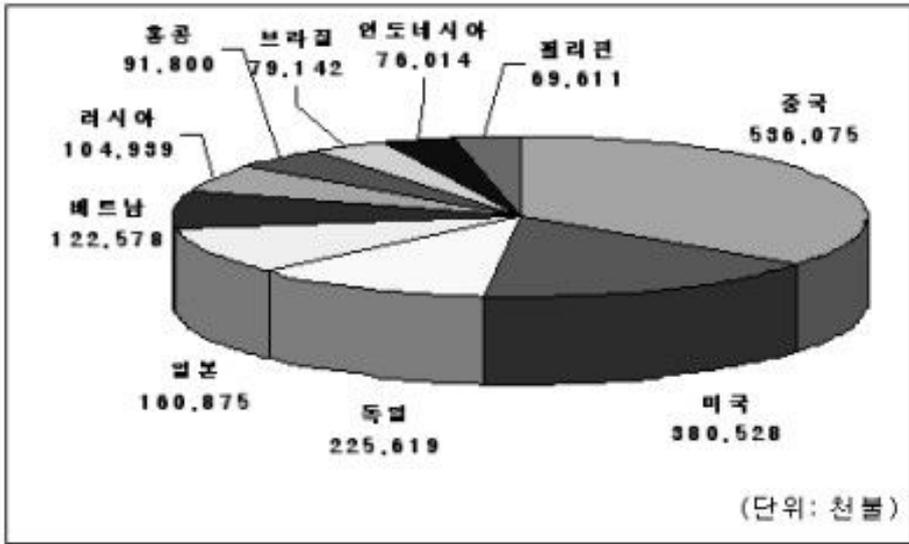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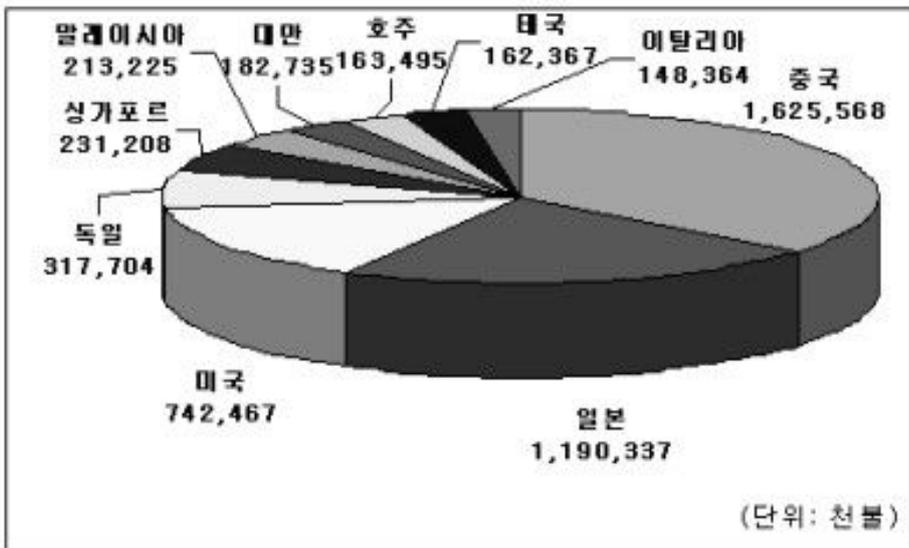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3월		2007년 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779,680	103.0	384,134	13.7
2	컴퓨터	584,936	39.5	419,425	-0.9
3	의류	283,522	25.1	226,635	14.9
4	자동차	256,464	11.6	229,737	1.9
5	철강관	226,963	81.3	125,163	100.2
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66,009	83.9	90,285	-19.2
7	농약 및 의약품	147,719	50.7	97,998	45.5
8	전자응용기기	144,211	9.1	132,173	-6.1
9	곡실류	135,943	55.8	87,229	18.1
10	무선통신기기	133,872	9.4	122,331	-3.5
	합계	2,859,319	469.4	1,915,110	164.6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